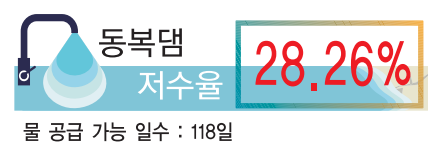


## 물 부족 현실화 “광주 내년 3월 제한급수 불가피”

### 姜시장, 첫 공식 언급 “실효적 방법 격일제 검토”

### 전남도 수도요금 감면 등 가뭄 극복 행정력 집중



은 이날 현재 28.26%다. 광주 수도물 생산량은 10월 셋째 주 전년 동기 대비 1% 감소한 것을 시작으로 넷째주 1%, 11월 첫째주 2.4%, 둘째주 2.4%, 셋째주 5.6%, 넷째주 6.2%, 이달 첫째주 8.2%, 둘째주 8.7% 등 차츰 감소 폭이 늘고 있다.

시는 절수 실천에 따른 물 생산량 감소율 8.7%를 적용할 경우 고갈 시기는 애초 3월 말에서 5월 14일로 예상했다. 내년 1월 20% 절수율에 도달할 경우 7월 장마 전까지 제한급수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특별교부세 19억원에 이어 지난 12월 40억원 추가를 지원받았다.

가뭄을 대비해 영산강 하천 유지유수를 끌어다 쓰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포함 예산을 들여 설계에 들어갔다. 내년 3월 전까지 마무리해 처음엔 3만t, 최대 5만t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가뭄 위기 극복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목표치인 20% 절수까지 함께 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전남도도 제한 급수가 도내 전역으로 시행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도민 캠페인 전개, 대체수원 확보 및 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 가뭄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뭄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도내 지역에 즉각적인 지원에 나섰다.

완도, 신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을 위해 예비비 41억원(예비비 13억원·특별교부세 2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한급수 지역인 완도 금일·넙도·소안면 등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급수 차량을 추가 운영해 물 공급량을 확

대하고 내년 2-3월까지 대형 관정과 해수담수화 시설을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18일 환경산림 민간단체 회원, 여수산단협의회 등이 참여한 현장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비자단체 ‘생활 속 물 절약 캠페인’, ‘공직자 물 절약 캠페인’ 등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 동참을 유

도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범도민 물 절약 운동 결과, 가정·기업·사업장 등 11월 생활용수 사용량이 지난해 대비 1일 6만3천t(7.8%), 공업용수 사용량도 1일 5만t(7.4%) 줄어드는 등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면에 계속 /김재정·박선강기자



광주 도심 찾은 ‘겨울 진객’ 큰고니

천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운 날씨를 보인 13일 오후 도심근교 광주광역시 산월동 영산강 산월2방수제 인근에서 겨울나기를 위해 찾아온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호) 무리가 한가롭게 노닐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 영산강(국가하천은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비오리 청둥오리 등 겨울철새들이 찾아와 활동한다. /김재정 기자

## 코로나 재유행

### 광주·전남 다시 5천명 돌파

광주·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돌파하는 등 재유행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광주 2천340명, 전남 2천762명 등 총 5천10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발생 추이는 ▲5일 4천489명(광주 2천20명·전남 2천469명) ▲6일 4천800명(광주 2천551명·전남 2천249명) ▲7일 4천301명(광주 2천264명·전남 2천37명) ▲8일 4천76명(광주 2천76명·전남 2천명) ▲9일 4천7명(광주 2천44명·전남 1천963명) ▲10일 3천574명(광주 1천894명·전남 1천680명) ▲11일 1천937명(광주 953명·전남 984명) 등이다.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81만3천711명으로 광주 전체 인구 중 56.8%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1천952명으로 2주 전 1천669명보다 17% 증가했다.

시는 감염취약시설 및 어르신들의 동절기 추가 집중을 60% 이상 높여 중증화와 사망으로의 진행을 철저히 예방하고 지역 사회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당초 18일까지였던 코로나19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청소년(12-17세)을 대상으로 2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전남은 주간 일 평균 1천953명이 감염됐고 감염 재생산지수는 1.11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매일 5만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선강기자

## “5·18 왜곡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퇴해야”

### 지역 정치권 “北개입설 동조 등 역사관 참담” 한목소리

지역 정치권이 5·18을 왜곡한 전력에 있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13일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를 규명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김광동씨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6면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김광동씨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17년 국립과학사연구원의 조사와 2020년 전두환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난 5·18 당시 헬기조사 격을 부정하고 있으며, 취임식이 열린 지난 12일에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5·18 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김씨는 5·18 왜곡·편향의 진원지로 꼽히는 북한군 개입설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김씨는 또 ‘역사 인식에 대한 국가의 파시즘적 통제’ 논문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비판하면서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거론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4항은 언론·출판에 대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씨는 5·18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형석 의원은 “지만원씨 등이 유포한 5·18 북한군 개입설은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정당화하려는 거대한 공작의 일환으로 날조됐다”며 “김씨가 국가폭력에 무참히 희생된 분들을 한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자신의 발언을 진술하게 사과하고 진실화해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전남도당도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고 김광동 위원장 임명 철회와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시장·전남도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화해’와 ‘화합’을 원한다면 논란과 분란을 유발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된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Today**  
**시교역정수능실채점 결과분석** 7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 14면  
**16강 주역들 소속팀으로 출국** 16면

---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미래**  
 성공 필수 키워드  
 • 광주사랑의열매 : 053-107-999990(광주은행)  
 • 전남사랑의열매 : 301-4000-3000-01(농협은행)

## 산재나 직업병이 의심된다면

# 직업병 안심센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직업병 안심센터는 업무관련성질환(직업병)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해 조선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의가 운영합니다.

진료·상담·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문의 바랍니다.

진료·상담·컨설팅 비용의 일부 지원이 가능하니 문의 바랍니다.

KODC **조선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 1588-6798**  
 광주직업병안심센터 대표전화 : 062)229-7835, 010-7338-7835, 062)220-3632  
 카카오톡 : kodiac\_gw

### 직업병 의심 주요 사례 진료

직업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조선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를 찾아주십시오. 아래는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사례의 일부입니다.

**응급의학과**  
급성중독, 화학물질 노출 후 이상증상, 작업장에서 발생한 의식소실·사망 등

**혈액종양내과**  
업무와 관련한 모든 암

**호흡기내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진폐증, 천식, 간질성 폐질환 등

**감염내과**  
업무와 관련한 모든 감염성 질환

**신경과**  
파킨슨 증후군, 말초신경병증 등

**소화기내과**  
업무와 관련한 간독성, 간경변증, 간기능 이상 등

**순환기내과**  
협심증, 심근경색증, 부정맥 등

**피부과**  
접촉성 피부염, 백반증 등

**정신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상담도 환영합니다.